

#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 문헌정보학관련 학회논문집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

이 수 상\*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
| II.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 | 1. 주류 패러다임의 문제    |
| 1. 인식객체의 측면       | 2. 생활문화적 패러다임의 개발 |
| 2. 인식주체의 측면       | IV. 맺음말           |
| 1) 연구방법의 구분       | 참고문헌              |
| 2) 연구방법상의 특성      | 부 록 : 주제분야별 연구논문  |

## I. 머리말

한국에 있어 문헌정보학은 무엇인가(무엇이 되어야 하는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라는 질문은 문헌정보학이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은 이래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타 학문의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의 연구자들은 이 기본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것이 문헌정보학이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기란 역설적으로 말해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학문은 끊임없이 성장·발전하거나 소멸되는 진화적·역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학문은 나름대로의 일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회문화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의 지식체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해석해

\*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博士課程

내어 그 구체적인 특성을 가늠하는 작업은 가능할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사고할 때 기존 지식체계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주류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은 개인적 사고체계의 결과물이 아니라 집단적·사회적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류 패러다임을 부정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는 지식체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므로, 지식체계는 상호보완 또는 충돌의 과정을 통하는 공동의 탐문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 문헌정보학은 어떠한 지식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 문제는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자들이 지식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문제의식에 투영하고 해결해 나갔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한국문헌정보학의 기존 연구성과를 추적함으로써 연구자가 한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문헌정보현상을 어떻게 지식체계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사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정보학의 연구성과가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그 당시로서 연구자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다<sup>2)</sup>. 아울러 현재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기존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연

- 
- 1) 필자는 지난 몇년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의 강의 - '제3세계도서관방법론', '도서관사상가연구', '문헌정보학사연구' 등 - 를 접하게 되면서 한국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너무 피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문헌정보학이 수입학문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외국의 논리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현 단계에 있어 한국문헌정보학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사회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 인용되거나 참고되는 문헌들이나 사고과정들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김정근 교수의 강의를 통하여 꾸준히 제시되고 소개된 문헌들 중 일부에서 얻어진 것임을 밝혀둔다.
  - 2) 30년 이상 학문으로서 지속되어 온 한국 문헌정보학 지식의 본모습을 보다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일종의 '한국 문헌정보학의 반성과 과제'라는 섬세한 논제는 학문경력이 많

구자의 길로 초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제를 선택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연구성과의 지식체계를 추적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경의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sup>3)</sup>.

이를 위하여 한국에 문헌정보학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연구성과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시론적 성격을 지니는 연구작업이므로 한국문헌정보학을 선도하고 있는 학회의 논문집 중 ①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그리고 ②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도서관학논집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고찰하여 본다<sup>4)</sup>.

## II.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

학회라 하면 학술의 연구·장려를 목적으로 학자들 사이의 연계를 꾀하며

은 연구자의 몫으로 돌리며, 여기서는 각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입장에서 보다 시론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성과와 연구과제를 논의한 몇개의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김세익, "한국 도서관학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보 13, (1976.1·2), pp.21-24. 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창립30주년 기념학술논문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989, pp.211- 238. 한복희,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렴적 고찰 - 1959년부터 1981년까지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논집 제9권 2호 (1982), pp.567-588. 한편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논문이 한편 발표되었기에 이것도 소개해본다.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준회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3, pp.81-112.

- 3) 지난 여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생들의 모임인 공동작업실에서는 '학위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여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역시 논문을 쓴다는 것,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인식 하면서 학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는 동시에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 토론내용은 [학기논고집 3](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3.8)에 실려있다.
- 4) 한국문헌정보학을 선도하는 학회논문집은 이 두가지 말고도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등이 있지만 이들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을 도서관학,정보학 그리고 서지학이라는 세가지 큰 연구영역으로 구분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서지학은 여러가지 고유한 학문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학 연구영역이 도서관학 연구영역의 확장이라는 논점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유영역이라는 논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색채가 짙은 두 학회지만 선정하였다. 한편 두 학회지의 연구논문 중에서 서지학분야(특히 형태서지학)로 구분될 수 있는 논문도 제외시켰다. 그러나 두 학회지에 나타난 정보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위의 두가지 논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즉, 포괄적으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sup>5)</sup>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학회는 현재 국가수준에서 살펴보면 크게 4가지 학회를 들 수 있다(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이러한 학회활동 중의 하나인 연구논문발표는 한국문헌정보학 지식체계를 이루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sup>6)</sup>를 바탕으로, 두 학회를 선정하여 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sup>7)</sup>.

·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학회창립 : 한국도서관학회로 출발 (1970)

한국문헌정보학회로 개명 (1989)

학 회 지 : 도서관학 (1970 - )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개명 (1993.6 - )

학회의 목적과 사업 :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국내외의 관계 학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도서관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 및 강연회
2. 학회지 및 연구자료의 간행

5)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낱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9. p.3630.

6) 학회의 활동은 크게 두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연구발표회나 강연회이며, 두번째는 학회지나 기타 연구자료를 출판한다. 이러한 학회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좋은 실례로서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연구활동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분석대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24집(1993.6)까지, 도서관학은 19집(1992)까지를 선정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경우 3집과 4집이 2년만에 5집은 3년만에 간행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씩 간행되다가 16집부터 년 2회로 간행되고 있으며 현재 총 180편(평균 7.58편)이 발표되었고, 도서관학은 1년에 한번씩 간행되며 지금까지 총 132편(평균 6.9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3.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 4.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도서관학논집

학회창립 : 경북도서관학회로 출발 (1974)

한국도서관·정보학회로 개명 (1978)

학 회 지 : 도서관학논집 (1974 - )

학회의 목적과 사업 : 도서관학연구를 통하여 도서관학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 2. 학회지, 연구논문지 및 학술자료 간행
- 3. 기타 학회가 필요로하는 사업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분석틀을 단순화시켰다. 즉,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인식객체의 측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인식주체의 문제)하는 지식체계의 두가지 인식측면을 구분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sup>8)</sup>.

1. 인식객체의 측면

인식객체의 측면은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연

---

8) 최성진은 위에서 소개한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한국문헌정보학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2년간(1991년과 1992년)에 걸쳐 도서관학(현재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41편과 정보관리학회지의 23편 논문들을 대상으로 삼아 문헌정보학의 기본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보편적 진실을 밝히고 있는가? 도서관정보봉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연구인가? 한국 도서관 정보봉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인가? 한국문헌정보학의 정립에 기여하는 연구인가의 다섯가지 물음을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의 주제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문으로서 무엇이 요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문헌정보학의 주제분야를 구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떠한 원칙과 의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구분작업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구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학회논문의 제목, 목차, 연구내용 및 목적 등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가장 적절한 주제키워드를 색출하여 이것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무엇이 연구되었는가를 구분해 보았다(상세한 구분은 부록 참조).

### 1) 장서개발

- 각종 기준 : 장서구성기준, 장서의 적정량기준, 장서폐기기준 등
- 장서평가
- 수서활동
- 장서개발정책, 고서·귀중서 장서개발 등
- 기타 장서성장모델, 교양명저 선정제도, 복본수 결정기법 등

### 2) 분류

- 사부분류법 : 자부분류, 경부분류 등
- 정부간행물의 보존문서분류법
- 분류법 일반 : 중국불교전적, 역사(DDC), 비교연구(문학분야의 KDC:DDC, 전자공학분야의 KDC:DDC, 경영학분야의 KDC:DDC:ND C), 백진분류법, 지역구분표(DDC), 어문학구분(DDC), 조기성, 종교분야 등
- 분류자동화, 분류전문가시스템 등
- 재분류

3) 색인

- 색인의 역사
- 자동색인
- 주제색인

4) 목록

- 저자기호표
- 목록규칙 : 기본기입에 관한 연구(특수한 고서, 연속간행물의 기본 기입 설정, 독일목록규칙 등), 목록규칙의 역사(AACR), 슬라이드 자료 목록규칙(AACR)의 역사, 비도서자료 목록규칙(AACR), 소프트웨어자료의 목록, 고전적의 형태기술, 가제식출판물의 기술목록 규칙 등
- 목록카드의 기선설정
- 고서목록
- 관차표시법
- 도서기호법
- 한국 단체명표목, 독일 단체명 기입 등
- 비도서자료의 매체표시
- 전거통제
- MARC의 연관저록

5) 검색

- 정보검색시스템 : 검색효율평가, 명령어 비교, 시스템개발 등
- 정보검색 : 정보이론적용, 중개시스템, 전문데이터베이스, 검색기법 (브라우징,하이퍼텍스트,퍼지검색),효과요인,검색자의 인지양식 등

6) 학위논문관리

- 목록기술형식 및 검색방법
- 정리와 이용
- 관리
- 수집방안

7) 정보(참고)봉사

- 정보봉사에 관한 문제 : 요인분석, 사회교육, 한국의 정보봉사, 미국과 한국의 법률봉사, 법률도서관, 분관의 봉사권역, 커뮤니케이션 문제, 미국의 정보봉사, 서지정보 봉사, 중고등학생 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효율성평가, 시각장애인 봉사, 정보요구, 한국정부간행물 봉사, 한국의 초록서비스 등
- 참고평가

8) 도서관체제

- 도서관실태조사(대학도서관, 새마을문고)
- 도서관발전책
- 연구도서관시스템
- 국립중앙도서관 : 국가문헌의 수집과 관리문제, 자료정리문제, 전산화문제 등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9) 도서관이용자

- 이용자교육 : 미국의 이용자교육 역사, 독서교육, 교육효과 등
- 도서관 이용능력



- 마이크로형태자료의 이용
- 목록이용, OPAC이용 등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이용자편의시스템(이용자모델링)
- 정보접근의 장애요소
- 이용자인식

#### 10) 도서관운영(경영,조직)

- 운영연구의 응용
- 자료실운영 : 과제도서실, 고전자료실 등
- 운영제도 : 지정도서제도, 관외대출제도, 봉사요금 등
- 원가계산
- 도서관업무 : 업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사용 등
- 도서관경영 : 마케팅 도입, 의사결정시스템 등
- 도서관조직 : 조직기준, 연속간행물 업무조직, 관료제조직, 건강성, 리더쉽 문제, 조직목적, 대학도서관조직 등
- 컴퓨터기술 도입
- 과학화

#### 11) 문헌정보학체계

- 학문의 체계화
- 명칭(도서관)
- 연구영역 : 중국의 목록학연구, 정보학, 목록이용연구, 이용자연구, 인공지능의 응용, 본문데이터베이스연구, 계량서지학 등
- 교육 : 비교연구(인도.파키스탄, 일본.한국.대만 등), 교과과정(교육제도, 주제전문사서 양성, 사서실습, 전문대도서관과, 문헌조사법,

교육이념, 정보학, 준사서 양성, 실습실, 정보전문직, 도서관관리론  
교육 등), 회고와 전망 등

- 서지학의 연구방법

12) 사서연구

- 사서의 사기
- 사서교사
- 사서의 의식
- 매체자료의 자료전문가
- 한국여성사서의 직력유형의 영향요인
- 정보관리직의 전문직 윤리

13) 도서관사

- 도서관사 : 향교문고, 비서성, 일제시대 철도도서관, 한국공공도서관사, 문헌각, 교서관, 대영박물관도서관 등

14) 문헌학

- 문헌연구 : 한국어린이잡지, 한국 사회과학문헌, 도서사, 과학저널, 조선후기의 서적수입정책, 문헌사, 조선전국초 인서문화, 서양백과사전사, 한국어번역 미국문학작품, 기독교교육 교과서, 한국어동문학도서 표지연구 등
- 계량서지학 : 브래드포드법칙, 계량정보학, 의학문헌 분석 등
- 미국에서의 한국학자료 서지통정
- 인용문헌분석 : 한국 사회과학문헌(사회과학자), 저자공인용, 학위논문의 인용실태 등
- 중국의 사지(史誌)서목

15) 도서관협력

- 도서관협력 : 목록작성, 참고봉사, 자원공유, 도서관네트워크, 색인  
지간행, 상호대차제도 등

16) 기타연구

- 중고등학생의 독서흥미, 과학기술정보체제, 학교도서관의 법과 행정, 고려시대의 효경연구, 도서관법(미국 공공도서관과 연방정부, 영국 공공도서관법 등), 중진국 정보유통체제, 학교도서관과 학교장, 정보기술, 아동의 독서실태, 대학출판부, IFLA, 도서관가구, 저작권법(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등), 농업정보시스템, 정보분석센터, 분류목록의 추리성, 학교도서관과 장학관, 산업체연구소의 정보기능, 문헌전송시스템, 공공도서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학문분야간 커뮤니케이션, 지정도서의 수업효과, 개발도상국의 산업정보정책, 정보관리의 법적문제, 네트워크연구, 독일의 사무실 정보시스템, 학교교육에서의 교수매체의 활용, EC의 정보활동, 공공도서관의 재원확보, 일본한자코드, 정보유통, 비디오텍스시스템, 사회지표 개발, 정보통신서비스 등

2. 인식주체의 측면

인식주체의 측면은 어떠한 연구방법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는가하는 문제이다. 즉, 한국문헌정보학에서 사용되어진 연구방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을 정확히 식별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여기서는 관련문헌을 찾아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들을 우선 점검해본다.

## 1) 연구방법의 구분

부샤(Charles H. Busha)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 : ①실험연구, ②서베이연구, ③역사적 연구, ④운영연구, ⑤기타연구방법(여기에는 관찰 및 기술, 사례연구, 도서관이용자연구, 평가연구, 비교연구, 내용분석, 델파이방법, 문헌연구 등이 포함). 한편, 차배근은 그의 「사회과학연구방법」이라는 저서에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을 크게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 사례연구방법으로 나누고는 문헌적 연구방법에는 ①도서관서베이방법, ②역사적연구방법, ③비판적 또는 분석적 연구방법(내용분석법)이, 실증적연구방법에는 ①기술적 연구방법(여기에는 서베이연구, ex post fact연구가 포함), ②실험적 연구방법(여기에는 실내연구, 현지실험이 포함)이, 그리고 사례연구방법에는 ①사례연구, ②사례사연구로 세분하고 있다.

이들 연구방법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

- 도서관서베이방법 (문헌조사방법)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서베이(social survey)와 구별되는 간접적 서베이방법이며, 주로 문헌적 자료를 통한 서베이를 하게 되므로 도서관서베이(library survey)라 부른다. 이 방법은 대체로 어떤 이론·연구방법·기구 또는 인물들에 대한 실태나 현상 또는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는데 사용된다.

- 역사적 연구방법

역사적 연구방법은 과거의 사건이 언제·어떻게·왜 일어났는지와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밝혀내는 연구방법으로 주로 사료(史料)에 의존하므로 도서관서베이방법과 구분된다.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료를 찾아내어 그것을

9) 이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harles H. Busha.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 Academic Press, 1980.과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전개정판, 서울, 세영사, 1992.에 잘 소개되고 있다.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확히 기술하게 된다.

#### · 내용분석연구방법

앞의 도서관서베이 및 역사적 연구방법과 뒤의 실증적 연구방법과의 중간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내용분석연구방법은 어떤 메시지의 특정한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누가·왜·무엇을·어떻게·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추리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 · 서베이연구방법 (조사연구방법)

이 방법은 설문지·면접등의 실증적 자료의 수집방법을 통한 연구 또는 그 방법을 말한다. 서베이연구방법의 목적은 a)어떠한 문제에 대한 탐색, b)어떤 집단·사상(事象) 또는 현상의 기술(記述), c)인과관계의 설명, d)가설의 검증, e)평가, f)미래의 사상에 대한 예측, 및 g)사회적 지표의 개발을 위한 목적등으로 분류된다.

#### · 실험연구방법

실험연구방법이란 a)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목적으로, b)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c)독립변인들을 인위적이고 계획적·체계적으로 조작 또는 변화시켜서, d)그것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방법으로 관찰 또는 측정하고, e)분석해서 주어진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증적 연구방법의 한 형태이다.

#### · 사례연구방법

인물·사상(事象)·사건·기관 등의 단일사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집중적으로 관찰연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방법들과 구분된다. 이 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수집방법은 직접관찰(참여관찰하기도 하

고 비참여관찰하기도 한다)방법을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면접 및 설문지를 통해 보충정보를 얻게 된다.

#### · 비교연구방법

여러가지 사물을 비교하여 유사(類似)·관련 또는 그 계통을 찾는 연구방법을 의미하며, 여타 연구방법 중 비교연구방법은 비교교육학, 비교법학, 비교심리학, 비교언어학 등과 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비교도서관학이 있으며, 주로 두나라 이상의 문헌정보현상과 관련되는 법과 제도나 여타 활동을 서로 비교·관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구분은 연구자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가하는 문제로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음과 같은 구분도 유용하다<sup>10)</sup>.

· 경험적 연구방법 : 자연과학적 방법과 형태를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과학화하려는 연구방법으로 교육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흔히들 이 방법은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통계적 방식, 계량적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방법으로서 연구자들이 통계처리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그 처리결과를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 부사나 차배근의 서베이연구방법 또는 통계적 자료를 이용한 사례연구, 실험연구 등은 대개 경험적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10) 이 구분은 황정규가 한국 교육학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방법을 분석할 때 사용한 구분인데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을 구분할 때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정규, "교육학 연구의 방법론 - 한국 교육학의 성장과정에 비추어 -," 교육학연구 제23권 제3호, (1985). pp.77-90.

· 해석적 연구방법 : 이 방법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방법이 너무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질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인류학, 사회학 등의 이론을 객관성과 가치중립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대상의 현상을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적유희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영역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는 역사적 연구나 비교연구방법, 내용분석연구방법, 도서관서베이방법 등이 속할 수 있다.

· 비판적 연구방법 : 이 방법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연구자들의 사고방식 즉, 가치중립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현재의 영향력에 대한 역사적-이데올로기적-가치적 의미파악에 치중하는 연구방법이다. 학문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주어진 사회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안정하게 고착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게 마련인데, 비판적 연구방법은 이를 비판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sup>11)</sup>. 경험적 연구방법과 해석적 연구방법은 사회적 현상을 물가치적 또는 탈이데올로기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방법이다. 그러나 비판적 연구방법은 이러한 연구방법에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는 연구방법이므로 사회과학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sup>12)</sup>.

또한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자생적 학문이라기 보다는 외국에서 도입되어 성장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서지학분야는 다소 예외적이라도) '학문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연구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한국이라는

11)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제반 사회현상을 윤리적 내지는 당위적으로 투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이러한 논쟁은 안석교 편역, 현대사회과학의 방법론, 서울, 한길사, 1984.에 잘 소개되고 있다.

구체적 토양을 전제로 하여 ①한국의 문헌정보학 이론과 외국의 문헌정보학 이론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외국이론을 보편적인 이론으로 인식하는 입장, ②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분석해내기 위하여 외국이론의 준거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그리고 ③외국이론은 거의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이론화하려는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 2) 연구방법상의 특성

사실 연구논문에 어떤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지를 뚜렷하게 판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구자가 위에서 제시한 방법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는 쉬울 수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을 특히 강조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연구논문은 특정한 연구방법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논문은 한국의 문헌정보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석해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연구방법을 서로 보완적으로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딱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종합하여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의 연구논문들은 대체로 서베이연구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설문지나 면접 등을 통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연구를 한다는 지, 통계자료, 각종 법률 및 기준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외국이론이나 문헌을 이용하여 모형(방안)이나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방법은 도서관사를 제외한 모든 주제분야에 걸쳐 유행되는 연구방법이다.

- 외국이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도서관서베이방법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선행연구를 파악하거나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파악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지 도서관서베이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sup>13)</sup>.

- 역사적 연구방법은 도서관사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분류(특히 고서분류) 및 문헌정보학체계분야(교과과정의 변천과정 분석)에서도 가끔 사용되고 있다.

-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특정 주제 영역(문학, 전자공학, 경영학분야)에 관한 분류기호표 비교(KDC와 DDC 비교, KDC, DDC와 NDC 비교), 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도서관학 교육의 비교 등이다.

- 사례연구방법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한 도서관 또는 한 도서관의 특정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아주 깊이 있게 관찰분석하는 사례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다룬 연구 몇 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단지 대학도서관이라든지 또는 한 지역의 대학도서관과 같이 연구대상을 추상적으로 설정하여 다루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대상 도서관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찰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관찰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서베이연구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내용분석연구방법은 어떤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문헌정보학(특히 문헌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분석대상의 논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13) 외국의 관련문헌 몇 편을 통하여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거나 연구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중심으로 깊이 숨겨져 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의 도서관서베이방법은 아직 학문으로서 성숙해 있지 못한 한국문헌정보학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수 있다.

• 실험연구방법도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논문의 경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 측정하고 있지만(특히 온라인 정보검색의 효과요인이나 인지양식 등을 분석하는 논문) 대체로 연구자는 구체적인 실험실보다는 연구실에 앉아 소수의 실험대상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반응을 분석하는 수준이다.

한편, 연구대상의 인식측면에 따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 거의 대다수 연구들이 경험적 연구방법이나 또는 일부 해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판적 연구방법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한국사회의 문헌정보현상에 대하여 탈이데올로기 또는 몰가치적인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즉, 도서관사의 경우 과거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거나, 또는 사건의 발전(변천)과정을 연대순으로 기술분석하고 있다. 현재적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험적 기술 또는 현상을 그대로 해석해내는 연구들 뿐이다.

학문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구분한 연구방법을 적용해보면,

• 대부분 외국이론과 한국이론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거나 외국이론의 준거틀을 약간 수정보완한 후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분석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적 이론을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한국적 이론을 개발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어떤 대상이나 기술, 특정 기준을 개발하든지, 특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독창적이기 보다는 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비주체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III.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 1. 주류 패러다임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한국문헌정보학 지식체계가 가지고 있는 주류 패러다임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문헌정보현상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분석하고, 외국의 경우와 대비하여 그것을 준거틀로 삼아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당면과제해결식의 연구방법이다.

무릇 연구의 핵심은 이처럼 문제해결식(problem solving methods)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해결식 접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왜(why)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하는 원인규명(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즉 왜 그러한 현황(실태)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외국의 틀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지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적·정치적·사회적 틀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아마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문헌정보현상이 가지는 가치나 신념에 대한 사상적·철학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이것이 순진하고 보수적인 사회집단(사서집단)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이처럼 사상적·철학적 기반이 없는 연구물들은 '운동성(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개혁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교육이나 구체적인 문헌정보현장에 투입되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국문헌정보학의 주류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해보자.

## (1) 연구주제분야의 과상성

그동안 연구영역은 많이 확대되었으나 일부 주제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회성 연구로 끝나 버렸다. 이것은 연구자가 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한 집착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으로 표현하면 각 연구자는 주된 전공영역이 없다는 것이거나 연구자 스스로 한국문헌정보학은 깊이있는 전문주제영역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sup>14)</sup>.

학문은 상호보완적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번 연구로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국문헌정보학 지식체계의 특성은 결국 논쟁이 없는 학문풍토를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상적·철학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비판적 사고방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떤 주제분야를 설정할 경우 누가 아직 손대지 않은 개척분야인가하는 판단이 고민의 핵심이 되며, 이런 주제분야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또는 기존 연구에서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달리 관점을 잡을수는 없는가하는 고민이 없다. 초창기에는 논쟁적인 논문이 있었다. 리재철과 장일세간에 벌어진 저자기호표에 관한 논쟁으로<sup>15)</sup>, 다소 공격적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비판과 토론은 학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연구주제분야의 과상성 문제를 파악하면서 얻게된 또 다른 충격은 연구성과가 많은 연구자들 중에는 여러 주제를 넘나드는(때로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여러 관종을 두루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부류의 논문들은 대개 전문성이 약하거나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

14) 일부 주제에 관해서는 한 연구자가 여러 편의 관련 논문을 집필한 흔적이 있으나 이들은 대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씩을 여러 번에 걸쳐 게재한 것 같다.

15) 리재철은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 도서관학 제1집 (1970), pp.1-58.에서 한국저자기호표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장일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자기호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2집, (1971), pp.1-45.에서 리재철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었다.

## (2) 성급한 '정보학적 요소'

일부 주제분야(분류자동화 및 분류전문가시스템, 정보검색 분야, 기타연구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문헌정보학에 '정보학적 요소'가 너무 성급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up>16)</sup>. 정보학적 요소의 역할은 문헌정보학의 기본문제(흔히들 전통적인 도서관학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가 충분히 다루어진 상황에서 이를 응용·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기본문제는 진부하다고 보아 귀찮아 하거나 아니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정보학적 연구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학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문헌정보학의 기본문제가 충분히 거론되고 연구되어 학문적 토대가 견고하게 갖추어진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응용하거나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보학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정보학자'가 아니고 문헌정보학자(도서관학자)의 위치에 있으며, 한국의 도서관은 전통적인 사서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지 아직은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는 리(Tze-chung Li)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 문헌정보학과들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는 최근의 미국정보학이 전통적 도서관학의 기본과 역할에 있어서 신념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문헌정보학의 기존의 정보학 프로그램은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문헌정보학 프로그램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7)</sup>.

16) 많은 정보학 연구자들은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에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분석대상의 두 학회지에는 정보학적 요소가 강한 논문의 수는 많지 않았다.

17) Tze-chung Li, "The Future of American Library Education - Return to Basics," in James S.C.Hu,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 International Symposium*, The Scarecrow Press, 1987, pp.229-236.

또한 고어먼(Michael Gorman)도 동일한 시각에서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의 커다란 문제 두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① 문헌정보학 교육은 도서관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 ② 정보학이라는 유해하고 무의미한 거짓원리(pseudo-principle)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재고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의 기초체계를 확립한 후 이를 구체화시키는 교과과정(핵심과목과 선택과목)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핵심교과목에는 도서관의 역사와 도서관이 “왜”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역사·철학·윤리 등에 관련되는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문헌정보학의 모든 현실적 활동을 표현하는 준거틀을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8)</sup>.

### (3) 편향된 연구방법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은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경험적(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만 너무 의존되어 왔다. 이것은 연구방법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경우 대개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방법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하는 것에서 쉽게 차이가 난다. 대체로 양적 연구에서는 비참여관찰인 서베이방법을 이용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시각에서 참여관찰을 한다는 것이다<sup>19)</sup>.

사실 양적 연구가 좋지 못한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상적

18) Michael Gorman. "How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Should Be Taught," *American Libraries* 23(8) (1992). pp.694-697.

19)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자료수집방법 이상의 더 많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경쟁적 관점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여러가지 연구방법들 양적 연구방법에는 대체로 서베이연구방법, 실험연구방법, 내용분석연구방법 등과 같은 경험적 실증적 연구방법들이 속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에는 사례연구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 연구방법, 비교연구방법, 도서관서베이방법과 문헌적 연구방법 등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알란 브라이언(Alan Bryman). *홍동식, 조정문, 고승환(역).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부산, 전문출판사, 1992.를 참조하면 된다.

인 당면과제해결을 위해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계량적 단위(모델)로만 환원시켜 설명<sup>20)</sup>하려는 양적 연구로만 너무 편중되어져서 질적 연구가 간과되어 버렸다는 것이다<sup>21)</sup>.

#### (4) 한국적 '토착화' 문제

이 문제는 앞서 많이 제기되었기에 여기서는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자료 즉,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는 습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 연구물보다 외국 연구물(특히 영어권 연구물)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물을 인용할 경우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나 기초적인 관점을 설정하는데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연구주제분야의 파상성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다른 연구자가 손대지 않은 분야를 외국의 연구물(외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을 통해 개척하려 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이는 미국식 이념(기술중심적인 이념)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의 현상을 연구하는 분석틀을 설정하는데도 나타난다. 연구대상은 한국의 독특한 문헌정보현상이지만 그 분석틀은 구미의 것을 과학적이라고 오해하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학문뿐만 아니라 구미에서 수입된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논쟁을 이미 경험하였으며 한국적 토착화를 위한 자기반성적 논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sup>22)</sup><sup>23)</sup>.

- 
- 20) 보다 과학적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대상을 계량적 단위로 환원시키고 있으나 현단계의 한국문헌정보현상 중에는 계량화시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대상도 많다. 사람(사서)과 장서에 관련되는 대상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 21)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문헌정보학계에서 이들 두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이들을 결합시키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 22) 특히 80년대 이후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학회발표논문이나 학회지의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많은 논쟁과 자기반성적 논의들을 찾을 수 있다.
  - 23) 최근 한국사회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신용하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한국사회학

## 2. 생활문화적 패러다임의 개발

대체적으로 한국문헌정보학의 주류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은 다음의 줄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학문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시기에 형성된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중시하여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작성 등 한국 도서관현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두번째로는 8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보여온 컴퓨터기술이 도서관에 도입될 때 형성된 정보학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미국 JASIS에 나타나는 논문들과 유사한 노선을 나타내면서 문헌정보학은 고도의 정보를 다루는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교과과정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서는 한국의 문헌정보현장은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술의 도움보다는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도서관기술을 다시금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돌아가 우리 주변의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헌정보 문화의 질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생활문화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90년대 들어 사회운동 부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생활문화적 패러다임은 이전의 자본주의적·사회주의적인 기술문화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생활

---

의 독창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제야말로 사회적으로는 한국사회학의 현실적 함성을 보다 증대시키면서 학문공동체 내적으로는 전세계에 내놓을만한 독창적 이론을 창출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독창성은 '한국사회학의 학문적 주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사회학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경험과학으로서 발전시켜야지 구미사회학의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여 억지로 한국사회의 사실들을 대입시켜 연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기존의 연구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사회학계에 대하여 그동안의 학문적 태도, 교과내용, 연구방법, 교육방식등 전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계에서도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지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용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안" 한국사회학회창립 취임사, (1993. 12). 동아일보(93.12.14) 관련기사 참조.



문화적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연구자들이 공허한 '미래'를 상정하여 현실과는 초연한 태도로 연구분야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구체적인 '현재'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문헌정보 현장의 생활문화 속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연구분야를 설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문헌정보현장의 주체들이 겪어내는 일상생활(삶)을 조명하고, 충분한 이론적 개입을 시도하여 어떤 질서를 찾아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민중)의 능동적·자율적 삶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헌정보의 내적인 통제와 외적인 봉사활동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대중의 생활속으로, 문헌정보의 현장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책상앞에 앉아 단순히 설문지를 내보내고 이를 취합하여 통계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sup>24)</sup>.

이처럼 우리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현상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한국문헌정보학 지식의 역할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이를 이론화시키면서 동시에 실천하게 하여 학문이 '운동성'을 견지할 수 있게 된다. 정체된 학문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지만 운동성을 지닌 학문은 학문의 주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장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나 공해추방단체 등에서 한국의 경제나 공해문제를 접

24) 이러한 연구방법 및 연구태도에 관한 좋은 실례가 하나 있다. 사회학자인 최재현에 의한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자의 의식세계 - 서독거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의 예 -" 한국사회학 제19집, (1985), pp.111-129.으로서, 그는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현지적응 실태 및 본국귀환 전망에 대해 주로 심층면접과 집단토의 및 참여관찰등의 질적방법을 통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식속에서 생산하여 표출시키는 일상생활의 이론을 검출하고 그 이론에 토대될 든 당사자들의 행동전략을 밝히고 있다. 약 2년 7개월동안의 현장관찰 및 분석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이론을 검출한 이 연구는 한국의 문헌정보현장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다.

근하고 해결하려는 방식이나 또한 한국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경우 등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학문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도입할 경우 학문으로서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sup>25)</sup>.

이를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헌정보학 지식체계의 틀(인식주체와 인식객체)을 변화시켜야 한다. 먼저 연구대상을 선정할 경우 우리 주변에 있는 질실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식주체와 관련된 연구방법의 경우에도 기존의 서베이연구방법이 양적 연구의 경향을 나타내었다면 이제는 질적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외국문헌의 탐색은 많을수록 좋지만 선택의 제일 조건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구체적인 문헌정보현상을 전제로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 조사연구방법도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분리되는 피상적인 설문지방식보다는 꾸준한 현장관찰을 시도하여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에 어떤 간격이 없어야 하겠다.

대상의 관찰이 철저할 경우 '한국의 대학도서관'과 같은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설정하기가 곤란해진다. 이들 전체에 대한 현장관찰을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자가 비교적 관찰이 쉬운 주변의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하다가 보면(이는 사례 연구가 될 수 있으며, 과거사를 연구할 경우 역사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모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즉, 부산지역의 연구자는 부산지역에 관하여 연구하고(아주 단위를 좁히면 하나

25) 도입기 학문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동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문헌정보학과 같은 인문사회관련 학문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동안 한국문헌정보학은 이러한 학문의 '운동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 같다.

의 도서관에 관한 연구도 가능하다) 대구지역은 대구지역에 관하여 연구하는 식으로 전국의 연구자가 자기 지역에 관한 연구를 하면 된다. 이는 지역간에 어떤 특수성을 지니게 되지만 한국이라는 범위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더 확장시키면 세계속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두지역 이상 또는 두 국가 이상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이는 곧 비교연구가 될 수 있다).

#### IV. 맺 음 말

흔히들 21세기 사회의 중심적 가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보다는 지식문화와 같은 정보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영토전쟁에서, 산업사회에서는 자원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절대적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지식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이에 따라 사회의 지식과 정보현상, 특히 탐구력이 강한 문헌정보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문헌정보학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한국문헌정보학 지식체계를 구성하는데 많은 과오가 있었던 것 같다. 너무 파상적인 주제분야의 나열식 설정, 정보학적 요소의 성급한 도입에서의 과오, 편향된 연구방법, 그리고 한국적 토착화의 실패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이들 과오를 더이상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교훈이 하나 있다. 한국행정학의 거물 연구자인 박동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1992년 12월 한국행정학회 연말학술대회에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학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신은 오랜 고민과 방황 끝에 거의 독학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였다<sup>26)</sup>.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오랫동안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또한 독학하지도 않으며 여러사람들(한국문헌정보학 연구자와 현장사서 등)이 자주 모여 토론하면서 해결해 나아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제언을 한다. 이제는 진정한 한국문헌정보학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들을 과감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에게 결여되었던 '학문의 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26) 박동서.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향,”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4호, (1992). pp.1429-1435.

## 참 고 문 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공동작업실. 학기논고집 1집 1989-1991,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1.
- \_\_\_\_\_. 학기논고집 2집,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2.
- \_\_\_\_\_. 학기논고집 3집,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3.
- 이효성. “언론학의 한국화를 위한 시론,” 한국언론학회 발표논문, (1993.5).
- 정진성. “한국사회학연구의 이론 및 반성,” 한국사회학 제 19집, (1985), pp.3-26.
- 최재석. “1980년대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하여 - 1960,70년대의 사회학 연구태도의 반성 -,” 한국사회학 제 13집, (1979), pp.91-102.
- 박동서,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향,”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4호, (1992), pp.1429-1435.
- 황정규, “교육학 연구의 방법론 - 한국 교육학의 성장과정에 비추어 -,” 교육학연구 제23권 제3호, (1985), pp.77-90.
- 최재현,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자의 의식세계 - 서독거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의 예 -,” 한국사회학 제19집, (1985), pp.111-129
- 안석교 편역. 현대사회과학의 방법론, 서울, 한길사, 1984.
- 송호근. 지식사회학, 서울, 나남, 1990.
-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전개정판, 서울, 세영사, 1992.
- 브라이만, 알란(Bryman, Alan). 홍동식,조정문,고승환(역).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부산, 전문출판사, 1992.
-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참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총, (1993), pp.81-112.

- Li, Tze-chung. "The Future of American Library Education - Return to Basics," in James S.C. Hu,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 An International Symposium, The Scarecrow Press, 1987 : pp.229-236.
- Gorman, Michael, "How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Should Be American Libraries 23(8) (1992), pp.694-697.
- Pierce, Sydney J., "Dead Germans and the theory of Librarianship," American Libraries 23(8) (1992), pp.641-643.
- Busha, Charles H.,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 Academic Press, 1980.

부록 : 주제분야별 연구논문

- \* 주제분야는 주제키워드 / 대상관종 순서임
- \* 괄호안은 학회지명/권호:페이지수 순서임  
( a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b : 도서관학논집 )

1) 장서개발

- 장서구성기준 / 대학도서관 (b/2(1975):1-21)
- 장서성장모델 / 대학도서관 (b/2(1975):61-77)
- 장서의 적정기준량 / 대학도서관 (a/8(1981):183-207)
- 장서평가 (a/8(1981):233-263, a/15(1988):175-195)
- 장서폐기기준 (b/9(1982):213-240)
- 장서개발정책 / 대학도서관 (b/11(1984):101-142,  
a/22(92.6):109-141)  
- 고서,귀중서 / 대학도서관 (a/9(1982):3-35)
- 수서활동 / 대학도서관 (a/11(1984):77-116)
- 교양명저 선정제도 (b/13(1986):59-84)
- 복본수 결정기법 / 대학도서관 (b/13(1986):131-166)

2) 분류

- 사부분류법 - 자부분류 (a/8(1981):129-155)  
- 경부분류 (a/12(1985):201-224)
- 보존문서분류법 - 정부간행물 (a/8(1981):209-232)
- 분류법 - 중국불교전적 (b/11(1984):45-68)  
- DDC - 역사 (b/13(1986):85-111)  
- 비교연구 - KDC,DDC - 문학 (b/14(1987):39-69)  
- KDC,DDC,NDC - 경영학 (a/14(1987):19-65)  
- KDC,DDC - 전자공학 (b/15(1988):179-205)  
- 백진분류법 (a/20(91.6):35-63)  
- DDC - 어문학구분 (a/21(91.12):1-60)  
- 지역구분표 - DDC - 역사 (b/18(1991):193-216)  
- 조기성 (a/22(92.6):179-217)  
- 종교 (a/22(92.6):259-304)

- 분류자동화(b/11(1984):175-209, b/14(1987):149-179,  
b/15(1988):113-151, a/18(90.6):129-155)
  - 분류전문가시스템 (b/18(1991):139-192,  
b/19(1992):35-57, a/23(92.11):207-261)
- 재분류 (a/20(91.6):127-161)

3) 색인

- 색인 - 역사 (b/2(1975):23-59, b/4(1977):131-194)
- 자동색인 (a/9(1982):99-118)
- 주제색인 (b/10(1983):95-131, b/12(1985):61-96,  
a/15(1988):225-266)

4) 목록

- 저자기호표 (a/1(1970):1-58, a/2(1971):1-45, b/17(1990):25-49,  
a/23(92.11):33-62)
- 목록규칙
  - 기본기입 - 특수한 고서 (b/4(1977):113-129)
    - 연속간행물 (b/4(1977):211-236)
    - 독일 (a/21(91.12):61-101)
  - 역사 - AACR ( a/5(1978):55-86, a/7(1980):225-270,  
b/11(1984):143-179)
  - 슬라이드 - 역사 - AACR (b/10(1983):229-265)
  - 비도서자료 - AACR (a/11(1984):117-146)
  - 소프트웨어 (b/16(1989):99-128)
  - 고전적 - 형태기술 (a/20(91.6):271-295)
  - 가제식출판물 (a/20(91.6):437-472)
- 목록카드 기선설정 (b/4(1977):61-90)
- 고서목록 (a/6(1979):71-85)
- 관차표시법 (b/6(1979):27-52)
- 주제목록 / 전문도서관 (a/9(1982):75-98)
- 도서기호법 (a/12(1985):7-37)
- 단체명표목 - 한국 (a/14(1987):149-173)
  - 기입 - 독일 (a/19(90.6):113-149)
- 매체표시 - 비도서자료 (a/15(1988):119-140)
- 전거통제 (b/18(1991):217-243)



- 연관저록- MARC (a/22(92.6):305-330)

5) 검색

- 정보검색시스템 (a/6(1979):53-70)
  - 검색효율평가 (a/8(1981):73-101, a/16(89.6):177-205)
  - 명령어비교 (b/15(1988):207-243)
  - 시스템개발 (a/21(91.12):225-248)
- 정보검색 (a/15(1988):197-224, a/24(93.6):333-369)
  - 정보이론적용 (a/6(1979):87-103)
  - 중개시스템 (a/17(89.12):299-337)
  - 전문데이터베이스(a/17(89.12):339-366)
  - 검색기법 - 브라우징 (b/17(1990):111-143,  
b/18(1991):245-268)
    - 하이퍼텍스트 (b/18(1991):91-138)
    - 퍼지검색 (a/21(91.12):249-290)
  - 효과요인 (a/22(92.6):361-396)
  - 검색자의 인지양식 (a/19(90.12):189-241)

6) 학위논문

- 목록기술형식 및 검색방법 / 대학도서관 (b/12(1985):133-160)
- 정리와 이용 / 대학도서관 (b/12(1985):161-198)
- 관리 / 대학도서관 (b/14(1987):71-98)
- 수집방안 / 대학도서관 (b/14(1987):217-240)

7) 정보(참고)봉사

- 정보봉사 (a/13(1986):73-94)
  - 요인분석 (a/3(1973):83-102, a/24(93.6):73-112)
  - 사회교육 - 경상북도 / 공공도서관.마을문고  
(b/1(1974):1-15)  
/ 대학도서관 (b/1(1974):17-30)
  - 한국 (b/5(1978):91-117)
  - 법률 - 미국,한국 (b/5(1978):169-199)

- 법률도서관 (b/6(1979):187-211)
- 봉사권역 - 분관 / 공공도서관 (b/6(1979):105-140)
- 커뮤니케이션문제 (b/7(1980):115-145, b/8(1981):69-96)
- 미국 (a/8(1981):103-127)
- 서지정보 - 서울 / 대학도서관 (b/8(1981):31-68)
- 중.고등학생 (b/10(1983):59-94)
- 평생교육프로그램 / 공공도서관 (b/10(1983):133-155,  
b/14(1987):1-37)
- 효율성평가 (a/13(1986):95-119, a/21(91.12):141-168)
- 시각장애인 (b/13(1986):29-58)  
/ 공공도서관.접자도서관 (a/24(93.6):139-169)
- 정보요구 - 대구 / 공공도서관 (b/17(1990):51-83)
- 한국정부간행물 (a/23(92.11):127-163)
- 초록서비스 - 한국 (a/24(93.6):9-51)
- 참고평가 (a/15(1988):141-174)

8) 도서관체제

- 실태조사 / 대학도서관 (b/1(1974):69-87)  
/ 새마을문고 (b/11(1984):211-240)
- 도서관발전책 / 국립대학도서관 (a/6(1979):105-135)  
- 전북지역 / 공공도서관 (b/15(1988):25-77)
- 연구도서관시스템 (b/9(1982):179-211)
- 국립중앙도서관 - 자료정리 (a/7(1980):3-67)  
- 자료관리의 전산화 (a/8(1981):3-72)  
- 국가문헌의 수집과 관리 (b/15(1988):79-111)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a/16(89.6):243-279)

9) 도서관이용자

- 이용자교육 - 역사 - 미국 / 대학도서관 (b/3(1976):51-78)  
/ 대학도서관 (b/9(1982):33-61)  
- 독서교육 / 학교도서관 (b/14(1987):181-215)  
- 효과 (a/17(89.12):261-273)
- 이용능력 / 학교도서관 (a/5(1978):152-178)

- 마이크로형태자료의 이용 - 연구기관 (a/7(1980):197-223)
  - 목록이용 / 대학도서관 (b/9(1982):1-31, b/9(1982):241-266)
    - OPAC (a/19(90.12):151-188)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대학도서관 (a/15(1988):7-44, a/17(89.12):85-105)
  - 이용자편의시스템 - 이용자모델링 (b/16(1989):129-157)
  - 정보접근 - 장애요소 (a/23(92.11):165-205)
  - 이용자인식 / 공공도서관 (b/19(1992):145-209)
- 10) 도서관운영 / 대학도서관 (b/16(1989):1-32)
- 운영연구의 응용 (a/4(1975):43-71)
  - 운영제도 - 지정도서제도 / 대학도서관 (b/4(1977):1-38)
    - 관외대출제도 / 대학도서관 (b/9(1982):145-178)
    - 봉사요금 (b/12(1985):35-59)
  - 자료실운영 - 과제도서실 / 대학도서관 (b/5(1978):119-168)
    - 고전자료실 (b/19(1992):115-143)
  - 원가계산 (b/10(1983):157-191)
  - 도서관업무 - 업무자동화 (b/10(1983):193-228, a/12(1985):165-220, b/15(1988):153-178)
    - 워드프로세서 (b/12(1985):199-232)
  - 도서관경영 - 마케팅 도입 (b/14(1987):99-120)
    - 의사결정시스템 (a/20(91.6):163-222)
  - 도서관조직 / 대학도서관 (b/16(1989):221-249, a/22(92.6):397-441)
    - 조직구조 - 기준 / 공공도서관 (b/5(1978):33-65)
    - 업무조직 - 연속간행물관리 (a/12(1985):87-120)
      - 관료제조직 (a/15(1988):95-117)
      - 건강성 (a/19(90.12):63-112)
      - 리더쉽 / 공공도서관 (b/19(1992):1-34)
      - 조직목적 / 공공도서관 (a/22(92.6):29-82)
  - 컴퓨터기술도입 (a/17(89.12):161-201)
  - 과학화 (a/17(89.12):275-298)

11) 문헌정보학체계

- 학문체계화 (a/1(1970):103-132, a/1(1970):133-146,  
b/4(1977):91-111, b/5(1978):1-31)
- 명칭문제 (a/2(1971):63-78)
- 연구영역 - 목록학연구 - 중국 (a/4(1975):27-42)
  - 정보학 (b/6(1979):1-25, b/8(1981):1-29,  
b/18(1991):269-300)
  - 목록이용연구 (a/7(1980):69-88)
  - 이용자연구 (b/11(1984):43-75, a/23(92.11):107-125)
  - 인공지능의 응용 (a/14(1987):67-92)
  - 본문 데이터베이스연구 (a/17(89.12):49-83)
  - 계량서지학 (a/19(90.12):243-261)
- 교육 - 비교연구 / 인도.파키스탄 (b/13(1986):167-201)
  - / 일본.한국.대만 (a/17(89.12):203-227,  
a/18(90.6):3-53)
  - 교과과정 (b/8(1981):97-126, a/11(1984):43-75,  
a/12(1985):269-327, a/15(1988):45-72)
    - 교육제도 (a/5(1978):101-124, a/9(1982):37-52)
    - 주제전문사서 양성 (a/6(1979):37-51)
    - 사서실습 (a/10(1983):3-37)
    - 전문대도서관과 (a/10(1983):71-120,  
a/18(90.6):213-276)
    - 문헌조사법 (b/10(1983):27-58)
    - 교육이념 - SLMP - 미국 (a/12(1985):121-147)
    - 정보학 (a/16(89.6):111-176)
    - 준사서 양성 (b/17(1990):85-109)
    - 실습실 (b/17(1990):175-210)
    - 정보관리직 교육(a/21(91.12):191-223)
    - 도서관관리론 (a/22(92.6):83-107)
  - 회고와 전망 (a/16(89.6):3-32, 33-53, 55-70)
- 연구방법 - 서지학 (a/20(91.6):223-270)

12) 사서연구

- 사서의 사기 (a/5(1978):125-151)
- 사서교사 / 학교도서관 (b/7(1980):85-114, b/12(1985):97-132,  
a/17(89.12):229-259)
- 사서의 의식 / 공공도서관 (a/16(89.6):207-242)
- 자료전문가 - 매체자료 (b/17(1990):1-24)
- 직력유형 - 영향요인 - 한국여성사서 (a/21(91.12):103-140)
- 정보관리직 - 전문직 윤리 (a/22(92.6):1-27)

13) 도서관사

- 도서관사 (b/9(1982):115-144, a/16(89.6):71-110,  
b/18(1991):11-59)
  - 향교문고 (a/5(1978):1-30)
  - 비서성 (b/7(1980):57-84)
  - 철도도서관 - 일제시대 (b/9(1982):63-83)
  - 공공도서관 (a/10(1983):39-70, a/20(91.6):65-125)
    - 일제시대 (b/16(1989):159-190,  
a/6(1979):137-163)
  - 문헌각 (a/11(1984):147-183)
  - 교서관 (b/11(1984):241-257)
  - 대영박물관도서관 (b/16(1989):69-98)

14) 문헌학

- 문헌연구 - 어린이잡지 - 한국 (a/3(1973):103-123)
  - 사회과학문헌 - 한국 (a/4(1975):1-26)
  - 도서사 - 파피러스 코텍스 (a/4(1975):72-85)
  - 과학저널 (b/6(1979):159-185)
  - 서적수입정책 - 조선후기 (b/11(1984):3-41)
  - 문헌사 (a/13(1986):3-37)
  - 인서문화 - 조선건국초 (a/13(1986):121-142)
  - 서양백과사전사 (b/13(1986):1-28)
  - 미국문학작품 - 한국어번역 (a/18(90.6):157-212)
  - 기독교교육 교과서 (a/23(92.11):63-106)

- 한국아동문학도서 - 표지 (a/24(93.6):113-137)
- 계량서지학적 분석 - 브래드포드법칙 (b/8(1981):127-154)
  - 계량정보학 (a/14(1987):93-130,  
a/24(93.6):53-71)
  - 의학문헌 (b/18(1991):61-90)
- 서지통정 - 한국학 - 미국 (b/14(1987):121-148)
- 인용문헌분석 - 사회과학자 - 한국 (a/15(1988):1-26)
  - 저자공인용 (a/22(92.6):331-360)
  - 인용실태 분석 - 학위논문 (a/24(93.6):205-219)
- 사지서목 - 중국 (a/24(93.6):289-332)

15) 도서관협력

- 목록작성 (a/2(1971):47-62)
- 참고봉사 (a/3(1973):25-46)
- 자원공유 (b/3(1976):1-31, b/4(1977):39-60)
- 도서관네트워크 (a/5(1978):87-100, b/12(1985):1-33,  
b/13(1986):113-130)
- 색인지간행 (a/12(1985):39-86)
- 상호대차제도 (a/13(1986):39-71)
  - 독일 (a/23(92.11):303-350)

16) 기타연구

- 독서흥미 - 중고등학생 (a/1(1970):59-75)
- 과학기술정보체제 (a/2(1971):1-24, a/20(91.6):405-436)
- 법.행정 / 학교도서관 (b/1(1974):53-67)
- 효경연구 - 고려 (b/3(1976):79-88)
- 도서관법 - 연방정부의 역할 - 미국 / 공공도서관  
(b/3(1976):89-109)
  - 영국 / 공공도서관 (b/7(1980):177-206)
- 정보유통체제 - 중진국 (a/7(1980):89-195)
- 학교장 / 학교도서관 (b/7(1980):1-55)
- 정보기술 (b/7(1980):147-176)
- 독서실태 - 아동 (a/8(1981):157-182)

- 대학출판부 (b/8(1981):155-184)
- IFLA (b/9(1982):85-113)
- 도서관가구 / 대학도서관 (a/11(1984):3-41)
- 저작권법 (a/11(1984):185-208)
  - 미국, 한국 (b/11(1984):69-99)
- 농업정보시스템 (a/12(1985):225-267)
- 정보분석센터 (a/13(1986):143-181)
- 분류목록의 추리성 (a/14(1987):3-18)
- 장학관 / 학교도서관 (b/15(1988):1-23)
- 산업체연구소 - 정보기능 (a/16(89.6):281-327)
- 문헌전송시스템 - 구미지역 (b/16(1989):191-220)
- 중소기업 - 정보요구와 이용 (a/18(90.6):55-98)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 공공도서관 (b/17(1990):145-173)
- 학문분야간 커뮤니케이션 (a/18(90.6):99-127)
- 지정도서 - 수업효과 / 대학도서관 (a/18(90.6):277-325)
- 산업정보정책 - 개발도상국 (a/19(90.12):3-22)
- 정보관리 - 법적문제 (a/19(90.12):23-61)
- 네트워크연구 (a/20(91.6):297-330)
- 사무실 정보시스템 - 독일 (a/21(91.12):169-190)
- 교수매체 - 학교교육 (a/22(92.6):143-177)
- EC의 정보활동 (a/23(92.11):1-31)
- 재원확보 / 공공도서관 (a/23(92.11):263-301)
- 일본한자코드 (a/22(92.6):219-257, b/19(1992):59-81)
- 정보유통 (b/19(1992):83-113)
- 비디오텍스시스템 (a/24(93.6):171-204)
- 사회지표개발 (a/24(93.6):221-261)
- 정보통신서비스 (a/24(93.6):263-288)

## A Study on Knowledge Syste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Soo-sang Lee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examining the research papers in two representative journals. In Korea, related scholarly associations have began about twenty years ago and produced a lot of research papers.

For this work, I have established two aspects of knowledge system - cognitive object and subject. In this regards, the cognitive object means the contents of research papers and the cognitive subject means the research methodology.

In my opinion, this study obtains some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s follows :

1.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fields, but most of them have finished with just one or two results and not researched.
2. The adaption of information science to library science was hasty and had not the good effects in scholastic development.
3. Most researche papers have been influenced by methodological prejudices.
4. In settling the native principles for the Korean phenomenon,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that the existing research



attitudes be converted to new one. I call this new research attitude 'everyday life centered research method'. Using this method, we can find the true basics and principl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